

주요 포털들의 서비스 분류체계 비교 분석

An Analysis of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s Provided by Major Korean Search Portals

박 소 연(Soyeon Park)*

목 차

1. 서 론	4.4 분류체계의 논리성
2. 선행연구	4.5 인터페이스
3. 연구 방법	4.6 배열 순서
4. 연구 결과	4.7 계층 구조
4.1 분류체계 제공 현황	4.8 기타
4.2 분류체계의 일관성	5. 결 론
4.3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분류체계를 분류체계의 일관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카테고리 및 사이트 배열 순서, 계층 구조 설계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동일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공통점이 거의 없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포털들의 통합 분류체계 구축과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털들의 분류체계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systems provided by major Korean search portals, Naver, Nate, Daum, and Yahoo-Korea. These classification systems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 consistency of classification system, logicity of classification system, ease of interface, clarity of category names, order of category and site listing, and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ach search portal provides separate classification systems for their services.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crucial for search portals to implement a common classification system and a common interface for their service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rtals' classification systems.

키워드: 검색 포털, 분류체계, 인터페이스, 계층 구조

Search Portals, Classification System, Interface, Hierarchical Structure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ypark@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4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5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241-262, 2010. [DOI:10.4275/KSLIS.2010.44.2.241]

1. 서론

국내 포털들은 검색 이외에도 디렉토리, 블로그, 카페, 뉴스, 사전, 백과사전, 책, 쇼핑 등 수십 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털들은 전통적으로 디렉토리 서비스에 국한되었던 분류체계를 점차 다른 서비스들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분류체계는 이용자의 향해 및 탐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포털의 분류체계는 특정한 주제 분야나 주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주제가 유사한 문서들을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색에 이용될 질의에 대한 정황 또는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탐색의 확장 및 축소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Kosh 1997). 또한 포털 입장에서는 분류체계를 통하여 방대하고 이질적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류체계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검색 시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포털들이 분류체계를 다양한 서비스에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 포털의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검색 포털들의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할 경우, 사이트의 품질, 수집된 사이트들의 규모 및 범위, 사이트의 유효성, 사이트 등록 및 분류의 적정성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류 전개 기준, 분류의 논리성 및 일관성, 계층 구조, 카테고리

명칭의 명확성 및 최신성, 카테고리 및 사이트의 배열 순서, 인터페이스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들을 평가할 경우에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체계의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서비스 분류체계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포털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특히 문헌 분류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웹 문서 분류체계 제안에 치중해 왔다. 국내 포털들이 기타 서비스에 분류체계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현상인 만큼 디렉토리 외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실제 데이터의 상세한 분석에 근거하여 포털들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털들의 분류체계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포털 업체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포털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에

치중해 왔다. 디렉토리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크게 전반적인 디렉토리 구축의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와 특정한 주제 분야나 영역의 디렉토리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전반적인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남영준(1998)은 웹문서 분류체계의 설계 분류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신동민(2001)은 디렉토리 구성, 주제 선정,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박소연(2009)은 국내 주요 포털들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컴퓨터,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커버리지, 카테고리 생성 기준, 사이트 선택 및 등록 기준, 최신성과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디렉토리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정한 주제 분야별 연구는 교육학(이명희 2000), 군사학(오동근, 황재영, 배영환 2001), 기독교(김명옥 2007), 농학(김정현, 문지현 2002), 디자인(김형년 2004; 임경란 2004), 문화콘텐츠(김성희 2002), 문헌정보학(최재황 1998), 물리학(최희운 1998), 산업(한상길 2001), 쇼핑(곽철완 2001), 어린이(배영환, 오동근, 여지숙 2008), 여성학(이란주, 성기주, 양정하 2001), 의학(정경희 2004), 정보통신기술(이창수 2000), 컴퓨터, 인터넷(김영보 1997)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디렉토리 외 포털의 서비스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국외 선행 연구들의 경우 포털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웹 분류에 대한 최근 국외 연구들로는 웹 문서의 자동 분류(Li, Zhu, and Ogihara 2008), 웹 문서 분류를 통한 검색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Mengle and Goharian 2010), 패킷 분석을 활용한 웹 문서의 분류(Uddin and Janecek 2007) 등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의 웹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수행되었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 분야는 효율적인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이 분야의 개념들도 포털들의 분류체계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 Rosenfeld와 Morville(2002/2003, 26)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① 인포메이션 체계 내의 내비게이션 체계, 레이블링, 조직화, ② 콘텐츠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업무처리가 용이하게 정보공간을 설계하는 것, ③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인트라넷을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학문, ④ 디지털 세계를 구조화하고 설계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전문 분야와 이와 관련한 커뮤니티”로 정의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로는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네비게이션, 검색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구조화는 웹사이트 정보의 최소단위에 대한 적절한 세분화 수준을 결정하고 이들 관계를 결정하는 작업이며, 조직화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그룹화하여 의미 있고 구분이 가능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레이블링은 이러한 범주를 부르는 이름과 이러한 범주로 연결되는 일련의 네비게이션을 해결하는 작업이다.”(Rosenfeld and Morville 2002/2003, 27). 레이블링의 중요한 규칙으로는 레이블링의 명확성, 일관성, 구체성, 콘텐츠와 일치하는 레이블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웹과

같은 계층 구조 설계의 중요한 규칙으로는 계층적 범주의 배타성, 폭과 깊이 간의 균형 등이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분류체계를 분석, 평가하였다. 4개의 포털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의 인지도와 대중성 때문이다. 즉, 이들은 매트릭스, 코리안클릭 등이 수행하는 각종 방문자 수 조사 및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다. 웹 사이트 평가 및 트래픽 분석업체인 인터넷 매트릭스(<http://www.metrixcorp.com>)에 따르면, 2010년 2월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이 국내 검색 포털 부문 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 중 파란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타 서비스에서도 분류체계를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는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최근 고객만족도 조사 인터넷포털, 검색서비스 부문에서 상위 5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포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분류체계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중요 개념들과 선행 연구들에서(김영보 1997; 김명옥 2007; 김형년 2004; 신동민 2001) 사용되었던 디렉토리 서비스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다.

- 분류체계의 일관성

-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 분류체계의 논리성
- 인터페이스
- 배열 순서
- 계층 구조
- 기타

위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털 서비스들의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를 위한 자료는 2010년 2월 셋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수집되었고, 평가 작업은 2010년 2월과 3월 동안 실시되었다. 연구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정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를 대상으로 동시에 수행되었다.

4. 연구 결과

4.1 분류체계 제공 현황

본 연구의 조사 결과 2010년 2월 기준으로 주요 포털들의 통합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서비스들의 개수는 20개에서 30개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서비스들 중에서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네이버와 다음이 가장 많은 9개 서비스들에 대해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포털들이 공통적으로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뉴스, 디렉토리, 쇼핑, 지식 검색 서비스였다. 3개 이상의 포털들이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뉴스, 블로그, 쇼핑, 지식 검색, 카페, 책 서비스의 분류체계는 <표 2>부터 <표 8>까지와 같다.

〈표 1〉 포털별 분류체계 제공 현황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디렉토리	디렉토리	디렉토리	디렉토리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
자료실		자료실	
전문정보		전문자료	
지식쇼핑	쇼핑	쇼핑하우	쇼핑
지식iN	Q&A	지식	지식
책	책	책	
카페	클럽	카페	
	지역정보		
			이미지박스
9	7	9	6

〈표 2〉 포털별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디렉토리	디렉토리	디렉토리	디렉토리				
최종 계층	9	8	5	6				
1단계 카테고리 수	13	17	15	14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뉴스, 미디어	18	게임	34	비즈니스, 쇼핑	66	뉴스와 미디어	46
	엔터테인먼트	21	스포츠, 레저	113	교육, 학교	33	여가생활	21
	교육, 학문	44	영화	23	컴퓨터, 인터넷	21	비즈니스와 경제	24
	게임	30	인물	43	여행, 세계정보	22	엔터테인먼트	24
	세계정보, 여행	16	컴퓨터, 인터넷	28	생활, 건강	42	교육	36
	경제, 재테크	36	엔터테인먼트	14	정치, 사회	20	건강과 의학	45
	사회, 정치	24	기업	77	인물	46	사회와 문화	28
	기업, 쇼핑	57	뉴스, 미디어	21	뉴스, 미디어	9	컴퓨터와 인터넷	39
	인물, 사람들	52	쇼핑	62	종교	19	정부	29
	생활, 건강	40	정부, 공공기관	10	문화, 예술	15	예술	26
	컴퓨터, 인터넷	34	생활, 건강	39	학문, 사전	15	자연과학	41
	레저, 스포츠	24	문화, 예술	19	게임	15	인문과 사회과학	41
	문화, 예술	19	여행, 지역정보	30	연예, 오락	10	지역정보	4
			교육	34	경제, 재테크	22	참고자료	27
			학문	32	스포츠, 레저	92		
			사회, 종교	13				
			경제, 재테크	23				

〈표 3〉 포털별 뉴스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최종 계층	2		2		2		2	
1단계 카테고리 수	10		10		8		7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정치	7	정치	7	사회	11	정치	7
	경제	6	경제	8	정치	7	경제	9
	사회	9	사회	11	사설/칼럼	5	사회	13
	생활/문화	8	세계	7	경제	10	문화	9
	세계	5	IT/과학	7	국제	10	IT/과학	7
	IT/과학	5	칼럼	4	IT/과학	6	세계	7
	연예	7	스포츠	8	문화/생활	11	연예	7
	칼럼	6	연예	5	연예	7		
	이슈, 토론장	5	플러스	8				
	스포츠	7	날씨	7				

〈표 4〉 포털별 블로그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블로그		블로그(분류체계없음)		블로그		블로그	
최종 계층	2				2		2	
1단계 카테고리 수	4				5		8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엔터테인먼트· 예술	9			생활	12	엔터테인먼트	8
	생활·노하우· 쇼핑	8			문화·연예	9	문화/예술	7
	취미·여가· 여행	8			IT·과학	6	여가/생활	9
	지식·동향	6			스포츠	7	IT	5
					시사	6	육아/교육	5
							사회/경제	5
							학문	4
							신변잡기	2

〈표 5〉 포털별 쇼핑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지식쇼핑		쇼핑		쇼핑하우		쇼핑	
최종 계층	4		3		3		4	
1단계 카테고리 수	19		14		20		20	
1단계 카테고리명 과 2단계 카테고리 수	가전	10	컴퓨터/ 소프트웨어	13	디지털가전/ 휴대폰	8	휴대폰	2
	컴퓨터 주변기기	11	레저/스포츠	14	영상/생활/ 계절가전	13	영상/음향	15
	의류	11	가전/핸드폰	18	주방/이미용/ 건강가전	9	계절가전	7
	패션잡화	11	식품	27	컴퓨터/주변기기/ 게임	12	화장품	13
	액세서리 시계	11	자동차용품	18	-----1)		패션잡화	7
	화장품 미용	12	화장품/향수	14	여성의류/속옷	19	패션의류	9
	명품	58	유아/완구/출산	16	남성의류/정장/ 속옷	12	주방가전	10
	가구 인테리어	10	가구/침구/ 인테리어	21	의류브랜드	6	생활가전	7
	침구 커튼 수예	8	명품/주얼리/시계	14	스포츠패션	10	컴퓨터/주변기기	23
	생활 주방 문구	12	의류/잡화	13	신발/수제화	19	수입명품	8
	유아동 출산	14	주방/육실/생활/ 공구	20	가방/지갑/잡화	16	가구/인테리어	9
	식품 슈퍼마켓	10	건강/미용	13	명품	7	주방/생활	10
	레저 스포츠	10	애완/악기/꽃/ 상품권	13	주얼리/시계/ 액세서리	15	스포츠/레저	11
	건강 다이어트	5	취미/팬시/문구	13	화장품/향수/ 뷰티쿠폰	22	자동차용품	12
	취미 예매 여행	10			-----		건강/성인용품	5
	면세점	6			유아동/출산	17	유아/아동	18
	꽃 배달	1			식품/슈퍼마켓	16	사무기기/용품	2
	해외쇼핑	7			-----		꽃/상품권	6
	자동차 용품	11			가구/인테리어	12	애완용품	11
					침구/커튼/카펫	11	식품	8
					생활/주방/문구	16		

					스포츠/레저/취미	19		
					자동차용품	11		

1) 이 표에서 미니그룹의 구분은 밑줄로 표시되었음.

〈표 6〉 포털별 지식 검색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지식iN		Q&A		지식		지식	
최종 계층	4		3		3		4	
1단계 카테고리 수	11		16		14		16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교육, 학문	21	컴퓨터·인터넷	13	컴퓨터, 인터넷	12	수능지식	3
	컴퓨터통신	11	가정·생활·취미	13	게임, 오락	9	지역지식	16
2단계 카테고리 수	게임	12	건강·의학	10	엔터테인먼트, 예술	13	과학	14
	엔터테인먼트, 예술	16	교육·학문	17	쇼핑, 제품정보	17	게임	11
	생활	13	경제·재테크	9	생활, 가정	18	건강	14
	건강	13	엔터테인먼트	7	-----		여가생활, 스포츠	14
	사회, 정치	14	쇼핑·상품정보	13	스포츠, 레저	19	비즈니스, 경제	17
	경제	10	여행	7	교육, 학문	10	엔터테인먼트	14
	여행	2	문화·예술	9	건강, 의학	10	사회	14
	스포츠	7	사회·시사·공공	9	금융, 재테크	11	꾸러기	15
	쇼핑	11	게임	7	사회, 문화	11	컴퓨터, 인터넷	13
			스포츠·레저	11	-----		교육	17
			기업·비즈니스	10	여행, 해외정보	8	문화, 예술	14
			어린이·호기심	9	지역정보, 교통	18	쇼핑	19
			지역	16	고민상담	13	가정, 육아	14
			고민상담	11	어린이 지식	8	생활정보	11

〈표 7〉 포털별 책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책		책		책		도서 ²⁾	
최종 계층	4		2		4			
1단계 카테고리 수	25		23		2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소설	4	가정과 생활	9	소설	16		
	시/에세이	10	건강/취미/실용	14	시/에세이	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국어와 외국어	12	-----			
	경제/경영	5	대학교재	13	인문	1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자기개발	5	만화	13	종교	6		
	-----		문학	6	역사/문화	13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인문	8	비즈니스와 경제	7	예술/대중문화	10		
	역사/문화	5	사회	13	-----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사회	7	수험서/자격증	12	경제/경영	16		
	과학/공학	12	여행과 지리	6	자기개발	8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예술/대중문화	8	역사와 문화	8	정치/사회	9		
	종교	5	예술/대중문화	13	-----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유아/어린이	8	유아	9		
	유아	5	인문	6	아동	17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어린이	5	인물	16	어린이 영어	11		
	-----		자기관리	10	-----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가정/생활/요리	5	자연과 과학	10	초등학습	9		
	건강	5	잡지	15	중/고학습	17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취미/레저	17	전집	3	청소년	18		
	여행/지도	4	종교	5	-----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청소년	9	취업/수험서	16		
	국어/외국어	5	컴퓨터와 인터넷	8	외국어	22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사전	7	학습/참고서	3	-----			
	컴퓨터/IT	5			건강	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과학	13		
	청소년	8			기술/공학	13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학습/참고서	5			컴퓨터/IT	15		
	취업/수험서	5			-----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만화	14			가정/생활	4		
	잡지	9			요리	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취미/스포츠	15		
	해외도서	17			여행/기행	9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			
					잡지	11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사전	4		
					만화	23		
1단계 카테고리명과 2단계 카테고리 수					아동/유아전집	2		

2) 야후는 독자적인 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G-Market의 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8〉 포털별 카페 서비스 분류체계

포털명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서비스명	카페		클럽(싸이월드)		카페		없음	
최종 계층	2		2		3			
1단계 카테고리 수	21		19		4			
1단계 카테고리명	지역	12	개인/가족/연인	7	문화/엔터테인먼트	7		
	동창/동문	7	팬클럽	8	생활/취미	4		
2단계 카테고리 수	친목/모임	9	컴퓨터/인터넷	12	지식/정보	5		
	팬카페	8	영화	6	친목	8		
	게임	6	음악	17				
	만화/애니	8	게임	14				
	영화/비디오	9	문화/예술	14				
	음악	8	방송/연예	8				
	방송/연예	5	취미/레저	18				
	취미	6	정치/사회	5				
	문학/창작	6	금융/재테크	7				
	문화/예술	7	종교/봉사	5				
	인문/과학	7	생활/건강/여성	9				
	정치/사회	5	교육/스터디	8				
	경제/금융	7	동창/동문	6				
	교육/외국어	8	학생/동아리	6				
	컴퓨터/인터넷	11	친목/또래	9				
	종교/봉사	6	회사/프로젝트	7				
	생활/건강	8	초/중/고/대학교	4				
	스포츠/레저	11						
	유니버	7						

4.2 분류체계의 일관성

일반적으로 분류체계는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조직되어 구조화, 체계화된 분류의 결과물 전체를 의미한다. 분류체계의 일관성은 분류 전개 기준의 일관성과 카테고리명 선정의 일관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4.2.1 분류 기준의 일관성

조사된 포털들의 디렉토리, 뉴스 서비스에는

주제별 분류 기준이, 쇼핑 서비스에는 상품별 분류 기준이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책 서비스와 카페, 지식 검색과 같은 커뮤니티 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복수의 분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었다. 네이트와 다음의 책 서비스에서는 주제, 도서 장르, 연령이 네이버 책 서비스에서는, 주제, 도서 장르, 연령, 지역 등의 여러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네이버 카페의 경우, 카페의 목적과 성격, 주제, 연령이 네이트 클럽의 경우, 카페의 목적과 성격, 주제

가 함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특정 서비스 내에서 복수의 분류 기준이 적용될 시 분류체계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저하되고,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제 외에도 카페의 목적과 성격이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분류 기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분류 기준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수의 분류 기준이 적용된 카테고리들이 인터페이스에서 분산되어 있어 이 역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니그룹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격이 상이한 카테고리들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는 분류 기준별로 별도의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안, 즉 패킷 분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2.2 미니그룹 구분 기준의 일관성

이용자들의 탐색 및 향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부분의 포털들은 다수의 유사한 주제들을 인터페이스 상에서 수평선을 이용하여 미니그룹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상위인 1단계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네이버의 책 서비스, 다음의 지식 서비스, 책 서비스, 쇼핑하우 서비스에 미니그룹이 사용되고 있으며, 디렉토리의 경우 2단계 이하에서 모든 포털들이 미니그룹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미니그룹 사용 시의 문제점으로는 미니그룹 구분 기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쇼핑하우 서비스 1단계에서 전체 카테고리들이 5개의 미니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니그룹 구분 기준이 명확하

지 않으며, “컴퓨터, 주변기기” “주방” “이미용” 처럼 성격이 판이한 카테고리들이 한 미니그룹에 속해 있었다. 또한 네이버의 책 서비스에는 문학 장르, 연령, 주제, 지역 등 복수의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연령별 카테고리인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른 미니그룹에 속해 있고, “청소년”과 “만화” “잡지” 등이 한 미니그룹에 속해 있는 등 미니그룹 구조가 적절하지 않았다.

4.2.3 카테고리명의 일관성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분야에서 레이블링은 범주(카테고리)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의미하며, 레이블링의 중요한 규칙으로는 레이블링의 명확성, 일관성, 구체성, 콘텐츠와 일치하는 레이블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레이블링의 일관성은 카테고리명의 일관성과 레이블링 작업의 일관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동일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들에서 카테고리명 선정 시에 동일한 개념에 대해 상이한 카테고리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디렉토리에서는 “연예, 오락”을 카페에서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카테고리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네이버의 디렉토리에서는 “도서”를 블로그에서는 “책”이라는 카테고리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네이버 디렉토리에서는 “여행, 지역정보”를 책 서비스에서는 “여행과 지리”라는 카테고리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야후의 지식 서비스에서는 “컴퓨터”를 쇼핑 서비스에서는 “컴”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야후의 지식 서비스의 경우, “수능지식” “지역지식”처럼 “지식”으로 종료되는 카테고리명과 “여행” “지역”과 같이 주제

명으로 종료되는 카테고리명이 공존하는 등, 동일한 서비스 내에서도 레이블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네이버 전문 정보 서비스의 “학술자료 > 의약학” 카테고리 하위의 14개 카테고리들의 대부분이 “내과학”처럼 “~학”으로 종료되는 카테고리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보건” “외과”와 같이 주제명으로 종료되는 카테고리명도 일부 존재하였다.

또한 포털들이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명으로 통합 시, 서비스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레저와 스포츠라는 두 개념들을 결합 시, 네이버의 디렉토리에서는 “레저, 스포츠”를, 카페에서는 “스포츠/레저”를 쇼핑에서는 “레저 스포츠”를 1단계 카테고리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네이버의 블로그에서는 “취미·여가·여행”처럼 모든 카테고리에서 ·을 사용하여 복수의 개념들을 통합하고 있었다. 네이트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결합 시, 디렉토리에서는 “컴퓨터/인터넷”을, 클럽에서는 “컴퓨터/인터넷”을, Q&A에서는 “컴퓨터·인터넷”을, 책서비스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1단계 카테고리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복수의 개념들을 결합하기 위하여 디렉토리 서비스에서는 “정치, 사회” 방식을, 책 서비스에서는 “정치/사회” 방식을,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문화·연예”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야후의 경우 디렉토리 서비스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방식을, 지식 서비스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방식을, 블로그와 쇼핑에서는 “문화/예술,” “영상/음향”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특정한 포털의 분류체계들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이한 카테고리명을 사용하고, 복수의 개념들을 단일 카테고리명으로 통합할

때 상이한 방식과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분류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4.3.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위에서 언급된 레이블링의 규칙 중 레이블링의 명확성은 카테고리명의 명확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사 결과, 포털별로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이트 뉴스 서비스의 “플러스”나 Q&A 서비스의 “어린이·호기심”의 “호기심”처럼 카테고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였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의 “지식, 동향”과 다음 카페의 “지식/정보”는 모든 주제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카테고리명이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분류체계의 논리성

분류체계의 논리성은 분류체계가 특정 주제 분야의 상하위간 인과관계, 항목 간의 균형성과 일관성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가를 의미한다(김영보 1997; 김형년 2004). 조사에 포함된 모든 포털들의 분류체계에서 논리성이 부족한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학문 분야 분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표 9>는 네이버 디렉토리, 카페, 전문정보 서비스의 상이한 학문 분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문과학”이 네이버의 디렉토리에서는 1단계의 “교육, 학문”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로

〈표 9〉 네이버 디렉토리, 전문정보, 카페 서비스의 학문 분류체계

디렉토리 > 교육, 학문	전문정보 > 학술자료	카페 > 인문/과학
공학	사회과학	인문
의학	자연과학	철학
농학	공학	자연/환경
인문과학	의약학	공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
자연과학	경영, 경제	천문학
	문화예술	의학
	정보통신	

존재하나, 카페에서는 “과학”과 통합되어 “인문/과학” 형태의 최상위 카테고리로 존재한다. 인문, 과학과 동등한 계층에 있어야 할 사회 과학은 네이버 카페의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학과 의학은 “인문/과학”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철학, 천문학과 같은 특정한 학문 분야가 인문, 과학, 공학 등과 동등한 계층에 위치한 것도 분류체계의 비논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에서도 경영, 경제, 정보통신과 같은 세부적인 학문 분야가 최상위 계층에 배치되어 있다. 네이버 디렉토리에서는 최상위 카테고리라 제시되었던 농학이 전문정보 서비스에서는 공학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등 전반적인 분류체계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의 Q&A 서비스의 “교육, 학문” 카테고리 하위에는 학문과 관련된 2단계 카테고리인 “인문·사회과학,” “자연·공학,” “한국학” 카테고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학” 카테고리는 인문 사회과학 하위의 3단계 카테고리로도 존재하며, 2단계와 3단계에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 “한국학”은 “인

문·사회과학” 하위 카테고리라 존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디렉토리 최상위 카테고리인 “학문, 사전” 하위에는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자연과학”과 “과학일반”이 함께 2단계 카테고리에 배치되어 있다. “과학일반”에는 15개의 소수 사이트들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연과학” 카테고리의 총류성 카테고리라 볼 수 있으므로 “자연과학” 카테고리의 하부에 통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의 클럽 분류체계에는 “동창/동문,” “학생/동아리,” “친목/또래,” “회사/프로젝트,” “초/중/고/대학교”처럼 범위가 중복되는 카테고리들이 다수 존재하여 카테고리의 배타성 및 분류체계의 논리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도 “지역,” “동창/동문,” “친목/모임”과 같이 범위가 중복되는 카테고리들이 존재하여 네이트 클럽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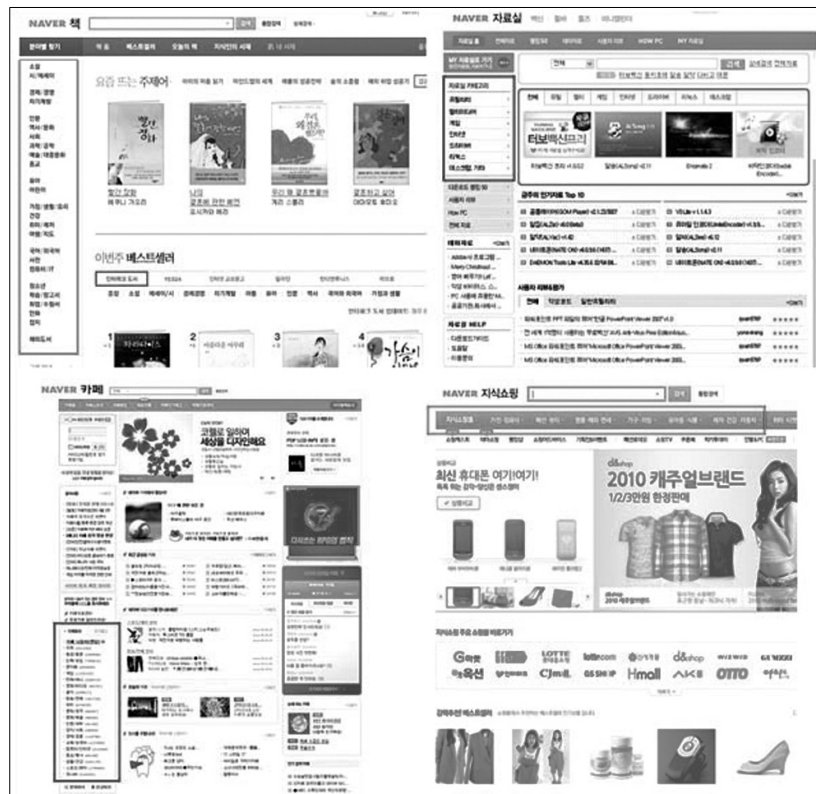
4.5 인터페이스

포털들은 서비스 메인화면에 분류체계 메뉴를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포털의 서비

스들 간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뉴의 위치와 형태, 경로 표기 방법, 소속 자료 수 표기 방법, 하부 카테고리 전개 방법 등에서 서비스별로 통일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네이버의 책, 자료실 서비스의 경우, 분류체계 메뉴가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하나, 카페 서비스의 경우, 화면 하단에 위치하며, 쇼핑 서비스의 경우 화면 상단에 가로로 펼쳐져 있는 등, 서비스별로 분류체계 메뉴가 일관성 없게 배치되어 있었다. 다음의 블로그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분류체계 메뉴가 페이지 하단에 가로로 위치하고, 자료실의 경우, 페이지 상단에 버튼 메

뉴로 제공하고 있어서 분류체계 메뉴의 위치뿐만 아니라 제공 형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분류체계 메뉴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인터페이스가 매우 산만한 편이다. 블로그의 1단계 카테고리들은 화면 우측 상단의 “모든 주제”라는 메뉴에서 제공되는 반면, “영화,” “책,” “요리”와 같은 일부 2단계 카테고리들이 블로그 홈 화면 상단의 메인 메뉴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카테고리들이 화면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오늘의 Top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블로그 홈의 화면 하단부에는 모든 1단계, 2단계 카



<그림 1> 네이버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그림 2〉 다음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테고리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포털에 속한 서비스들 간에 카테고리 경로를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최종 카테고리명만 표기하고 카테고리 경로를 표기하지 않는 반면, 네이버 카페에서는 경로에 서비스명까지 포함하여 표기하고 있었다. 다음 블로그의 경우 “1단계 카테고리명 > 2단계 카테고리명”으로 경로를 표기하고 있으나, 자료실의 경우 “자료실 > 1단계 카테고리명 > 2단계 카테고리명”과 같이 서비스명이 경로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있었다.

동일한 포털의 분류체계들 간에 하위 카테고리를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였다. 네이버 자료실과 전문정보 서비스의 경우, 1단계 카테고리 바로 하위에 2단계 카테고리를 세로로 전개하고 있으나 카페와 책 서비스의 경우에는 1단계 카테고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부 카테고리들을 화면 중앙 상단부에 가로로 전개하고 있었다. 네이트, 다음, 야후의

경우에도 하부 카테고리들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로, 세로, 마우스 오버 세로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4.6 배열 순서

이용자의 향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카테고리 및 사이트 배열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의 분류체계들의 카테고리 배열 순서를 보여 주며, 〈표 11〉은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이트 배열 순서를 보여준다. 〈표 10〉에 따르면, 네이트 책 서비스의 1단계 카테고리인 야후 디렉토리의 카테고리 탐색기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들의 카테고리 배열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메인 화면에 전체 카테고리를 배열하고, 화면 왼쪽에 이용자의 사이트 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테고리 탐색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네이버와

〈표 10〉 카테고리 배열 순서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뉴스	×	×	×	×
디렉토리	×	×	×	× 카테고리 탐색기: 자모순
블로그	×	분류체계 제공 안함	×	×
쇼핑	×	×	×	×
자료실	×	타사로 이동됨	×	서비스 제공 안함
전문정보	1단계: × 2단계이하: 등록문서건수순	분류체계 제공 안함 전문자료 홈이 없음	×	서비스 제공 안함
지식 검색	×	×	×	×
책	× 2단계 마우스오버의 경 우: 자모순	1단계: 자모순 2단계이하: ×	×	타사로 이동됨
카페	×	×	×	서비스 제공 안함

〈표 11〉 사이트 배열 순서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뉴스	×	×	×	×
디렉토리	인기도순	자모순	랭킹순	자모순
블로그	주목도순	인기도순	×	최신순
자료실	등록일순		최신순	
전문정보	연도순	정확도순	×	×
지식쇼핑	×	인기도순	인기상품순	인기상품순
지식 검색	최신순	최신순	최신순	최신순
책	×	출간일순	판매량순	
카페	회원수순	새글수순	랭킹순	

네이트의 경우, 메인화면과 카테고리 탐색기 모두 정렬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화면이 산만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 배열의 경우 포털들이 서비스별로 상이한 배열 순서를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3개의 서비스들은 사이트 배열 순서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개의 서비스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를 배열하고

있었다. 네이트도 서비스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배열하고 있었다. 또한 네이버의 전문정보 서비스의 경우, 연도순 배열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동일한 연도 안의 많은 자료가 월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사이트 탐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동일한 포털의 서비스들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를 배열할 경우, 이용자의 사이트 탐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모순이 아닌 방식으로

사이트를 배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제시되었듯이(곽철완 2001; 신동민 2001; 김성희 2002), 디렉토리나 같은 웹의 분류체계는 숫자기호체계가 아닌 문자기호체계를 따르므로, 이용자의 효율적인 항해 및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자모순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카테고리 및 사이트 배열이 요청된다. 자모순이 아닌 인기도 순이나 주목도 순 등의 순서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포털의 서비스들의 경우 가급적 일관성 있는 카테고리 및 사이트 배열이 요청된다.

4.7 계층 구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분야에서 계층 구조 설계 시의 중요 원칙 중의 하나가 계층의 폭과 깊이 간의 균형이다(Rosenfeld and Morville 2002/2003; Larson and Czerwinski 1998). 폭은 계층 구조 내 각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카테고리) 수이며, 깊이는 계층의 단계 수를 의미한다. 계층이 지나치게 깊을 경우, 이용자가 너무 많은 클릭을 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가 계층 구조 항해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이용자의 시각적 스캔 능력과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계층이 너무 넓을 경우 이용자는 한꺼번에 제공되는 모든 옵션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의 깊이가 지나치게 깊거나 폭이 지나치게 넓은 계층 구조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계층의 깊이와 폭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계층의 깊이는 5단계, 계층의 최대 폭은 30-40

개의 카테고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Rosenfeld and Morville 2002/2003; 박소연, 배희진, 이준호 2004; 신동민 2001).

본 연구에서는 포털의 서비스별로 계층 구조의 최종 깊이와 1단계와 2단계 카테고리 수를 <표 2>부터 <표 8>과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들의 계층 구조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포털들의 서비스들 중에서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가 가장 복잡하였고, 블로그, 카페, 뉴스의 구조가 가장 단순하였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 다음, 야후 모두 최종 깊이가 2단계였으며, 2단계 카테고리 수도 평균 5.6개로 매우 단순하였다. 책, 쇼핑, 카페 서비스의 계층 구조는 전반적으로 디렉토리나 블로그의 중간 정도로 복잡하였다.

계층의 폭의 경우 디렉토리를 제외하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렉토리의 경우 네이트의 2단계 최대 폭이 113개, 다음의 최대 폭이 92개, 네이버의 최대 폭이 57개, 야후의 최대 폭은 46개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계층에서도 하부 카테고리 수의 편차가 커서 계층 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이트 디렉토리의 “스포츠, 레저” 소속의 2단계 카테고리 수는 113개인데 반해 “정부, 공공기관” 소속의 2단계 카테고리 수는 10개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 디렉토리의 “스포츠, 레저” 소속의 2단계 카테고리 수는 92개이고, “뉴스, 미디어” 소속의 2단계 카테고리 수는 9개이며, 야후 디렉토리의 “뉴스와 미디어” 소속 2단계 카테고리는 46개이고, “지역정보” 소속 2단계 카테고리 수는 4개로 2단계 카테고리의 최소값과 최

대값 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계층의 최대 깊이는 네이버의 디렉토리가 9계층, 네이트의 디렉토리가 8개로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경우 야후를 제외한 모든 포털들이 지나치게 깊은 계층의 깊이와 넓은 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8 기타

다음 전문자료 서비스의 분류체계 전체적으로 카테고리 소속 콘텐츠 건 수 및 페이지 수의 표기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하였다. 다음 전문자료 하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소속 콘텐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 0건의 자료가 있습니다”라는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특정한 카테고리 소속 콘텐츠 수 옆에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수를 명기하고 있는데, 현재 페이지 수가 바뀔 때마다 전체 페이지 수도 변경되어 전체 페이지 수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다음 전문자료 서비스의 “참고자료 > 단행본 > 도서”와 “참고자료 > 단행본 > 교서” 카테고리 하부에는 포함된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속 사이트가 없거나 극소수인 카테고리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클릭을 요구하며, 내용이 부실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의 서비스 분류체계를 비교,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포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분류체계의 일관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 전개 기준, 카테고리명 선정, 미니그룹 구분 기준, 인터페이스, 계층 구조, 카테고리 및 사이트 배열 등 모든 면에서 분류체계들 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공통점이 거의 없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이처럼 서비스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의 분류체계 이용 및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조사 결과, 포털들의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별로 모든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통합 분류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분류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서비스별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계층 구조나 카테고리명 선정 등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메뉴의 위치와 형태, 경로 표기 방법, 소속 자료 수 표기 방법, 하부 카테고리 전개 방법 등과 같은 면에서 인터페이스 표준화도 필요하다. 셋째,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전개 기준과 미니그룹 구분 기준의 구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질적이고 방대한 웹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복수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 기준별로 다각적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안, 즉 패킷 기반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일부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계층 구조의 불균형의 문제와 지나치게 깊은 계층의 깊이와 넓은 폭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한 카테고리와의 사이트 배열순서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털들의 분류체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별 포털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 및 계층 구조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포털들이 디렉토리 외 서비스에도 분류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별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향후 연구가 요구되는 사

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기준들에 따라 분류체계를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용자 지원, 부가 서비스, 광고 포함 여부, 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외 포털들의 분류체계들에 대한 비교, 분석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분류체계에 향해 및 접근 행태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한 별도의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박철완. 2001. 인터넷 쇼핑물의 상품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8(4): 210-215.
- [2] 김명옥. 2007. 기독교 분야 웹문서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27-144.
- [3] 김성희. 2002. 인터넷상의 디지털 문화컨텐츠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181-200.
- [4] 김영보. 1997. 『인터넷 탐색엔진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컴퓨터,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5] 김형년. 2004.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의 디자인 관련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인포디자인이슈』, 6: 95-106.
- [6] 남영준. 1998. 웹 문서 분류체계의 분석 및 새로운 설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207-230.
- [7] 박소연. 2009. 주요 포털들의 디렉토리 서비스 비교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15-234.
- [8] 배영환, 오동근, 여지숙. 2008. 인터넷포털과 인터넷서점의 어린이자료 분류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21-344.
- [9] 배희진, 이준호, 박소연. 2004. 로그분석을 통한 네이버 이용자의 디렉토리 접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17.
- [10] 신동민. 2001. 인터넷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구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2): 143-163.
- [11] 오동근, 황재영, 배영환. 2001. 군사학 분야 웹 문서 분류체계의 설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2(2): 323-347.
- [12] 이란주, 성기주, 양정하. 2001. 여성학분야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397-417.
- [13] 이명희. 2000. 국내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교육 분야 분류체계 연구. 『국회도서관보』, 37(2): 25-46.
- [14] 이창수. 2001.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111-138.
- [15] 임경란. 2004.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인터넷 정보 자원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디자인학연구』, 17(4): 79-88.
- [16] 정경희. 2004. 의학 분야 웹 자료의 분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2): 89-106.
- [17] 최재황. 1998.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의 디렉토리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DDC분류 체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5(2): 47-67.
- [18] 최희운. 1998.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물리학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5(3): 45-57.
- [19] 한상길. 2001. 산업분야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285-309.
- [20] Kosh, T. 1997. "The role of classification schemes in Internet resource description and discovery." [online]. [cited 2010.4.1].
<<http://www.ukoln.ac.uk/metadata/desire/classification/classification.rtf>>.
- [21] Larson, K., and Czerwinski, M. 1998. "Web page design: Implications of memory, structure and scent for information retrieval." [online]. [cited 2010.4.1].
<http://research.microsoft.com/en-us/um/people/marycz/chi98_webdesign.pdf>.
- [22] Li, T., Zhu, S., and Ogihara, M. 2008. "Text categorization via generalized discriminant analysi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4(4): 1684-1696.
- [23] Mengle, S., and Goharian, N. 2010. "Detecting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using text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5): 1046-1061.
- [24] Rosenfeld, L., & Morville, P. 2002.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Sebastopol, California: O'Reilly Media. 남상신 역. 2003. 『효율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서울: 한빛미디어.
- [25] Uddin, M. N., and Janecek, P. 2007. "The implementation of faceted classification in web site searching and browsing." *Online Information Review*, 31(2): 218-23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Chul-Wan Kwak. 2001. "A Study of Classification Systems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4): 210-215.
- [2] Myung-Ok Kim.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Christian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127-144.
- [3] Seong-Hee Kim. 2002.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ulture Contents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181-200.
- [4] Young-Bo Kim. 1997.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internet search engine*. Graduated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5] 2004. "A Study on the Design of a Portal Site for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s on Internet." *InfoDESIGN ISSUE*, 6: 95-106.
- [6] Young Joo Nam. 1998. "Analysis and Design for the System of Korean Web Document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207-230.
- [7] Soyeon Park. 2009. "Comparative Evaluation of Directory Services Provided by Major Korean Search Portals: In the Field of Computer and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15-234.
- [8] Yeong-Hwal Bae, Dong-Geun Oh, & Ji-Suk Yeo.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n Classification Systems for Children's Materials of Internet Portals and Online Booksto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321-344.
- [9] Hee JIn Bae, Joon Ho Lee, & Soyeon Park. 2004. "Directory Access Behavior of the NAVER users via Log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1): 1-17.
- [10] Dong-Min Shin. 2001. "A Study on the Organizing Directory for Internet Directory Search Engin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2): 143-163.
- [11] Dong-Geun Oh, Jae Young Hwang, & Yeong-Hwal Bae. 2001. "A Design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Military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2): 323-347.
- [12] Lan-Ju Lee, Kee-Joo Sung, & Jung-ha Yang. 2001.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Internet Resource for Women's Stud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ociety*, 32(3): 397-417.
- [13] Hyeong-Hee Lee. 2000.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Design of Directory Search Engine in Education Field."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37(2): 25-46.
- [14] Chang-Soo Lee. 2001.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Internet Resources in the Fields of the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4): 111-138.
- [15] Kyung-ran Lim. 2004.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for using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on Internet Des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7(4): 79-88.
- [16] Kyoung-Hee Jung. 2004. "A Study on the Organizing Web Materials in the Field of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2): 89-106.
- [17] Jae-Hwang Choi. 1998. "A Study on the Use of DDC Scheme in Directory Search Engine for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s on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5(2): 47-67.
- [18] Hee-Yoon Choi. 1998. "A Comparative Study on Classification Schemes of Internet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5(3): 45-57.
- [19] Sang-Gil Han. 2001.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Internet Resources for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3): 285-309.
- [24] Rosenfeld, L., & Morville, P. 2002.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Sebastopol, California: O'Reilly Media. Translated by Sang-Shin Nam, 2003. *Hyoyuljeokin Website Guchukeul Uihan Information Architecture*. Seoul: Hanbitmedia.